통일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48호 【루계 제2251호】

주체102(2013). 11. 23 토요일 음력 10. 21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되였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대회에는 군종, 군단 정치위원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 각급 군사학교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보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은 인민군보위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보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성국가건설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대회를 지도하시기 위해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최대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제도를 한몸바쳐 보위해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대회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차수의 개회사에 이어 조경철 조선인민군 륙군상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는 지난 기간 각급 보위기관들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언급되였다.

대회에서는 보위일군들인 리만수, 김원봉, 김능성, 리덕송, 최명호, 김숙일, 김명현, 라영학, 강유위, 리학철, 한경호, 김명호, 김건식이 토론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주악으로 끝났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구호의 함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영광의 대회장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공연도 함께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교마움에 겨워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손저어주시였다.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남성합창 《병사들은 행군해간다》, 관현악 《가마마차 달린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고지에서의 노래》, 녀성독창과 남성방창 《선군승리 열두달》,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녀성독창 《보위자의 노래》, 남성합창 《사회주의 지키세》,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등의 종목들이 울랐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뜨겁게 새겨준 공연은 종곡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으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의 《만세!》의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대하마냥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보위전사들이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며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몸소 지도해주시며 인민군보위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해가고있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믿음을 인생의 값높은 영광과 행복으로 간직하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길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보위전사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통하여 인민군보위기관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영광의 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충정의 맹세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 교직원청사, 연구생청사, 강습소, 회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마무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여온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군사일군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사연구원을 일떠세우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대학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품격에 맞게 김정일군사연구원의 모든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군사연구원의 교육시설뿐만아니라 야외축구장과 롱구장, 배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실내사격관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김정일군사연구원을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새로 꾸리고있는 만경봉체육단의 축구훈련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어머니날을 맞는 공장의 녀성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이 공장은 군인들에게 고급당과류와 고급빵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보장하는 식료가공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자작업반, 빵작업반, 꽈배기작업반, 문화회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 로동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현대화실현에서 야심만만한 목표를 제기하고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생산지령과 감시, 조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여러 생산공정들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당과류들을 만족하게 보시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몸소 과자맛을 보아주시며 모양도 곱고 맛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식료품들에 대한 군인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다는 보고도 기쁨속에 들어주시였다.

공장에서 작은 생산면적에서 적은 로력을 가지고 생산원가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고있는것은 당이 바라는대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자랑하고싶은 본보기공장, 식료공장의 표준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것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손로동을 없애고 로동자들을 힘겨운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된 일터에서 녀성근로자들이 흥겨운 로동생활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멋쟁이공장, 백점,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은 최고에 최고라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생산을 늘여 군인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보내주고있는 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군인들의 어머니로 불리울수 있게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리고있는 만경봉체육단의 축구훈련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각지의 여러 축구경기장, 운동장들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는 체육시설로 훌륭히 꾸리기 위해 만경봉체육단의 축구훈련장에 인공잔디를 본보기로 깔아놓도록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구훈련장에 새로 깔아놓은 인공잔디를 보시고 천연잔디와 같은 질감이 난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인공잔디를 깐 축구훈련장이 자기의 기능을 다할수 있게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지반조성을 잘하였으며 배수체계도 철저히 세웠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구선수들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훈련과 경기를 원만히 하도록 하자면 축구경기장들에 질좋은 인공잔디를 깔아주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축구경기장, 운동장들에 인공잔디를 깔아주면 선수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수 있을뿐아니라 풍치도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의 축구경기장, 운동장들을 만경봉체육단의 인공잔디축구훈련장처럼 꾸리자면 질좋은 인공잔디를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모든 체육시설들을 손색없이 일신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필생의 념원과 유훈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였고 유훈이다.

하루빨리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는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지금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도 조국을 통일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앞세워야 한다고, 모든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등 통일의 대강들을 발표하시여 온 민족을 통일위업실현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해 기울이신 그이의 불같은 로고와 심혈의 자욱은 민족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에도 어려있다.

온 강토와 세계를 끓게 한 열일곱해전 판문점시찰의 그날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6.15시대의 통일려명을 부른 장엄한 통일뇌성으로 삼천리를 진감시켰다.

그이의 숭고한 뜻과 드팀없는 통일의지에 의해 희망찬 새 세기의 분수령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평양상봉의 나날은 7천만겨레에게 통일의 벅찬 환희를 안겨주고 대결과 불신의 랭기가 가셔질줄 모르던 삼천리강토를 통일열기로 덥혀준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의 나날 조국통일문제는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외세가 조선문제에 간섭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민족끼리는 자주와 단합의 리념으로, 6.15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리념으로 빛을 뿌리며 온 겨레를 통일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초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5(1996)년 11월 24일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온 겨레에게 통일의 리정표를 안겨주신 장군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열풍이 온 강토에 차넘쳤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기속에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이 이어지고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의 래왕과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과 회합이 뜻깊게 마련되였다.

확고한 통일의지와 특출한 령도실력,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해 2007년 10월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였다.

하기에 남녘의 동포들은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통일운동의 최진두에 몸소 나서시여 드팀없이 확고한 통일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하신것이라고 격찬하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불신과 갈등의 장벽을 넘어 우리 민족끼리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는 전민족적리정표이며 분렬 반세기를 마감짓는 고귀한 결실이라고 토로하였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과 유훈인 조국통일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지난해 3월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실현하여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실 철석의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그이의 판문점시찰소식을 전하면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강성국가건설을 이끌고있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유훈을 한치의 양보나 드팀도 없이 끌까지 관철하려고 한다.》고 전하였다.

지난해 4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광장의 단상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위인상에서 사람들은 한생토록 조국통일을 위한 길을 걸고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뵈웠다.

열화같은 조국애와 민족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서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대로 통일되고 부강번영할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

통일애국의 길을 이어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면서 대대손손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지도 근 70년을 헤아리고있다.

민족분렬의 기나긴 세월 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이어 삼천리강토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3월 민족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시찰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친필비를 돌아보시면서 조국통일실현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판문각, 통일각을 비롯하여 판문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가 반영된 판문각과 통일각을 잘 보존관리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 확고한 통일의지가 어려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판문점시찰은 온 민족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북돋아준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자신의 통일애국의지를 이렇게 천명하시였다.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그이의 말씀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시대적, 민족사적사명감을 지니신 령도자의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지가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뜻과 위업을 이어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매국배족세력의 반민족,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온 민족의 통일애국의 발걸음을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강 철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실현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뜻이고 유훈이다.

자주통일의 기치높이

주체67(1978)년 11월 재미동포 최덕신선생이 조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어느날 그를 만나시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조국을 찾아온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그와 허심탄회하게 담화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담화석상에서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이며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민족의 분렬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당한것이지만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문제이다, 우리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이듬해 5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최홍희선생을 만나시였을 때에도 우리의 상봉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신 수령님께서는 재미동포들이 조국에 많이 오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족이라면 북과 남에서 살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모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고, 조선사람들끼리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6.15시대의 나날에

력사적인 2000년 6월 평양상봉때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측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남공동선언문에 담을 내용이 화제에 올랐을 때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에 들어선것만큼 7 000만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락관을 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을 털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며 희망적인 문건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제안에 남측 대통령은 쾌히 동의하였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6.15북남공동선언의 중핵으로 제시되게 되였다. 그때를 회고하시며 장군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기본이라고 하시였다.

2002년 2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민족의 운명과 민족성원들의 운명의 호상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현시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는데 대해 지적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지향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단합의 강령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민족은 북남공동선언을 통일대강으로 높이 들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기어코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시대의 기관차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 초고전력전기로와 대형산소분리기개발, CNC공업화와 마그네샤크링카생산의 주체화실현 등 공화국의 경제적잠재력과 과학기술수준을 보여주는 결과물들은 수다하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력을 다지는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립증이다.

과학과 기술을 떠나 민족의 진보와 발전, 미래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지금은 과학과 기술발전, 생산장성이 일체화되는 지식경제시대, 과학기술시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떠나서는 부강조국건설과 그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국력이 중요하게 과학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최첨단돌파가 민족번영의 지름길이다. 로동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과학기술지식이 경제발전의 기본원동력으로 되는 지식경제시대에는 과학기술과 생산, 지식과 경제의 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요구하는것이다.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은 과학기술혁명이라고 하시며 과학기술발전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등 과학연구기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과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문제해결, 남새와 화초재배와 생산을 위한 과학연구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고 모든 부문에서 과학화를 다그치도록 이르시였으며 때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종자도 보내주시고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고무격려하시면서 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공화국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단천제련소, 대동강타일공장을 비롯한 많은 생산기지들의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이 현대화, CNC화되고 콤퓨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구축되게 되였으며 중요과학지구와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들을 축성하여 첨단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적극 추진되게 되였다.

인재의 공보다 인재를 천거한 공이 더 크다는 말이 있다. 과학자들이 그리는 설계도우에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며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두터운 사랑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애국심을 북돋아주고있다. 그들의 과학연구활동과 함께 생활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속에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게 되였다.

그이의 깊은 관심속에 최근에 평양에서는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열렸다.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조선을 기술수출국, 첨단기술제품생산국으로 만들자는것이 한자리에 모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의이고 결심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은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차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이며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는 과학기술발전을 중시하시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실력이 자자구구에 담겨져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용을 쓰며 힘차게 질주하는 기관차마냥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해 강성국가건설이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과학과 기술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 결의에 넘쳐있는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

선군청송의 메아리

병사중심의 군령도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에 인민군대의 면모를 소개한 글이 실렸다.

글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대식전투장비보다 인민군병사들을 더 믿으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에서 자주 쓰는 말을 빌리면 사상정신적힘은 곧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이다.

2009년 7월 27일 〈조선중앙방송〉이 록음실황으로 방송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6돐경축 TV방송모임〉에 의하면 만일 미일련합함대가 위성운반로케트를 요격하면 미일련합함대를 즉각 격침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기지를 리륙한 인민군전투비행사들은 〈성스러운 이 길에서 비록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 준 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맹세문을 쓰고 출격하였다고 한다. 북에서 인민군병사들을 교육하는 〈일당백공격정신〉이나 〈단숨에공격정신〉은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의 또다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자기들의 최고사령관을 결사적으로 옹위하며 자기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한목숨바칠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을 지닌 병사들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힘을 폭발시키기때문에 〈일당백〉도 가능하고 〈단숨에〉도 가능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군병사들이 사상정신적힘을 총폭발시키는것은 그들이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생관을 지녔기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하기 몇시간전인 2013년 3월 7일 이른새벽 김정은제1위원장은 자그마한 배를 타고 연평도가 손에 잡힐듯 바라보이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병사들을 찾아갔는데 김정은제1위원장의 시찰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김정은제1위원장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된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섬방어대들을 또다시 시찰하시였다는 소식을 들은 인민군장병들은 자기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보고 격동적인 심정을 느꼈을것이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천길 바다속에도, 타오르는 불길속에도 뛰여들겠다는 사생관을 더욱 공고히 하였을것이다. 〈유튜브〉에 게시된 북의 기록영화를 보면 실제로 김정은제1위원장이 섬방어대시찰을 마치고 떠나실때 배를 따라나선 섬방어대병사들과 가족들이 가슴치는 바다물에 뛰여들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섬방어대병사들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얼음물처럼 차거운 바다물에도 서슴없이 뛰여들만큼 강한 사생관을 가졌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어찌 그곳의 섬방어대병사들만 그렇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를 포함한 대군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자폭영웅, 육탄영웅이 나오게 될지 예견하기 힘들지만 평소에 자폭정신과 육탄정신으로 다져진 강한 사생관을 지닌 결사대가 지금 최고사령관의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사기자

장시

판문점의 아침

김태룡

어둠의 짙은 장막을 걷어내고
새날의 려명이 깃드는
판문점의 아침
11월 24일 이 아침은
못 잊을 추억에 실려 밝아오는가

동이 트는 하늘 가득
그리움이 차넘치는 이 아침
판문점의 하늘가에 솟는
저 붉은 해는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불덩이

잠에서 깨여난 새들아
잠시 지저귐 멈추어다오
소문도 없이 조용히 오시였던
그날의 장군님 발자욱소리
이 아침 들려오는듯싶구나

사무치게 듣고싶구나
수령님친필비앞에서
추억깊이 하시던 그이의 말씀
판문각로대우에 오르시여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자 하시던 그 말씀

어제런듯 삼삼한
1996년 11월 24일
분렬의 상징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시려
장군님 찾으셨던 력사의 날이여

생각도 많아라
가보셔야 할 곳 하많으시건만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마가을의 찬바람 맞으시며
여기 판문점에 오시였던가

길길이 솟구치는 초도의 풍랑에
흠뻑 젖은 야전복 말릴새없이
수백리 밤길 달려오신 장군님
어이하여 위험천만한 이곳으로
굳이 오셔야만 했던가

그날엔 일군들 가슴적셔주고
오늘은 우리의 눈굽뜨겁게 하는
장군님말씀

세월을 넘어 울리여오거니

—지금 정세가 긴장한데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신심을 주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갈마드는 피로를 애써 누르시며
결연히 나서신 판문점에로의 길
최전연의 최전방으로
결사의 각오안고 장군님 나서신 길

그 길이 아니던가
겨레가 그토록 갈망하는 조국통일
민족의 숙원 이루어주시려
어버이수령님
낮이나 밤이나 비오나 눈이오나
한생토록 가고가신

사연도 많은 그 길을
어버이장군님
수령님 통일유훈
한시도 미룰수 없는 조국통일
그 사명을 안고 달려오시였나니

한밤을 꼬박 지새워오시였건만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그이
아, 통일을 위해
그렇게 지새우신 밤
그렇게 맞이하신 아침 그 얼마였으랴

말해다오 세월이여
분렬에 몸부림치는
7천만의 고통 한가슴에 안으시고
해와 달 불태워오신
장군님의 천만로고를

이렇게 깊은 밤길이
조국통일에 가닿아있다면
이제라도 백리, 천리를 가겠다
하시던
그 못 잊을 밤은
어느 갈피에 새겨져있느냐

한자한자
겨레의 혈맥을 잇고
분렬된 이 땅의 비운 가시여줄
통일의 대강 내놓으시고
남먼저 창문을 열어 해돋이를 맞으신
그 아침은 또 언제이더냐

해와 해를 이어온 그 아침
통일 위한 로고의 자욱을
여기 판문점의 아침에 이으신 장군님
수령님 남기신 통일친필비앞에
오래도록 서계시였어라

—수령님께서는 통일을 위하여
정말 많은 로고를 하시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마디마디 절절한 그리움
한없는 경모가 차넘치는 말씀
통일을 위해 겨레를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수령님업적
그이는 뜨겁게 새겨보시는것이다

아, 비돌에 새겨진
수령님친필 아홉글자
가슴속에 아니 심장속에
기어이 통일을 이루실
의지의 불길로 안으신 어버이장군님

수령님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밝혀주시였어라

판문점의 고요를 헤가르며
장군님말씀 숭엄히 울려퍼질 때
하늘가득 눈부시게
퍼져오르던 해살이여
더더욱 밝아지던 판문점의 아침이여

찢겨진 겨레의 아픔이
동강난 강토의 쓰라린 비애가
가장 뼈저리게 쌓여있는 판문점
겨레여, 장장 반세기 넘도록
판문점에 이런 아침 있은적 있던가

숨막히는 고요만이 흐르던 곳에
통일의 뢰성 울려주시고
질어가는 분렬의 어둠을 산산이 태울
통일의 봉화를 지펴주신
민족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와라
장군님의 판문점시찰!
그것은 세계를 놀래운 특기할 사변
통일사에 남을 민족적거사라고
겨레가 터치던
감격의 환호 격정의 파도가

오, 장군님 찾으신
그날의 판문점의 아침은
민족의 앞길에 우리 장군님
통일의 서광을 안겨주신 아침이였다
겨레의 가슴마다 통일의 락관을 안겨준
력사의 아침이였다

11월 24일
판문점의 그 아침은
세월을 넘어 6.15시대
우리 민족끼리 그 아침으로 밝아왔고
10월 4일
뜻깊은 그날의 아침에로 이어졌거니

고마워라 고마워라
분렬의 어둠 한몸으로 가셔내시여
겨레에게 판문점의 아침을
통일의 밝은 희망으로 안겨주신
장군님의 그 은공

세월의 풍상도 지울수 없는
장군님의 뜨거운 통일헌신의 자욱
력력히 빛을 뿌리는 땅
경애하는 원수님 그 자욱우에
거룩한 자취 새기셨어라

평범하게 흐르는 날조차
옮기는 걸음걸음
위험이 따르는 이곳
하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팽팽한 격전전야의 3월
그때의 위험을 더 말해 무엇하랴

나는 빨찌산의 아들이라고
포연탄우를 헤치시듯
흰안개를 헤가르며
서슴없이 판문점으로 나서시던
장군님 그 모습이였던가

무모하게 미쳐날뛰는
침략자들의 횡포를 짓누르시며
판문점에 나서신 원수님
강인담대한 그 모습은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의 모습이였다

한생토록 가슴속에 품고사신
땅이였다

장군님 마음속에 안아보시던
남녘의 산야 사랑하는 겨레
마음속에 품어 안아보시는
그이 심장속에 세차게 고패친
뜨거움의 분출이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통일유훈
기어이 이루고
남녘의 한끝 한나산기슭까지
겨레여, 통일의 환희
끝없이 굽이쳐흐르게 하리라

아, 3월의 그날에
겨레는 보았다
이 땅에서 침략자들을 쓸어버리고
승전의 개가를 통일의 환호성으로 울리실
위대한 강철의 령장을

정녕 뜻깊은 그날에
겨레는 보았다
분렬의 한많은 력사를 끝장내고
이 민족의 숙망을 이루어주실
조국통일의 은인을

그이 아닌 그 누구에게
민족의 운명 통일의 운명 맡길수 있으랴
그이 아닌 그 누가
7천만을 품어안고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으랴

원수님 다녀가신
잊지 못할 3월의 추억을 안고
더더욱 불타는 판문점의 11월
흐르는 달과 달
판문점의 아침은 언제나 밝고 밝으리라

오, 그리움이 불타고
추억의 사연도 깊은 판문점
겨레는 보노라
판문점의 노을 붉은 이 아침에서
밝아올 통일의 려명을
하나된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금강산관광, 15년전과 오늘

11월 18일은 《북남경제협력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된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세계적명산인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 그리고 남조선 현대그룹의 요청을 공화국이 받아들여 1998년 11월부터 시작되였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남녘동포들의 금강산관광길이 열렸을 때 온 겨레는 커다란 기쁨에 넘쳤으며 전세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였다.

력사적인 2000년 6월 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후 금강산관광은 급격히 확대발전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금강산관광의 소원을 성취하였다.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근 10년간 금강산을 다녀간 남조선관광객수는 무려 3 550차에 190여만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는 남조선《국회》의원과 여야정치인, 청와대와 행정부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리들도 포함되여있다.

금강산관광을 통하여 민족의 혈맥이 뜨겁게 이어지고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산천구경이 아닌 통일의 무지개다리이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는 오작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금강산관광에 대해 처음부터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89년 남조선군사독재《정권》은 공화국의 아태와 현대측사이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의정서가 처음 체결되였을 때 그것을 무참히 짓밟아버려 관광을 수년간이나 지연시켰으며 1998년《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금강산관광길이 열리자 야당으로 전락된《한나라당》패거리들은 관광대가의《군사비전용》을 떠들며 그에 반기를 들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것을 기회로 2002년 남북협력기금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지시켰으며 2003년에는《대북송금》특검소동을 일으켜 금강산관광길을 개척한 기업가를 죽음에로 몰아넣는 반인륜적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금강산관광파탄책동은 2008년 보수패당이 집권하면서 더욱 본격화되였다.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금강산관광길을 끊어놓으려고 여러모로 책동하던 끝에 2008년 7월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기다렸다는듯이 즉시 관광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관광객사건으로 말하면 그 1차적원인은 금강산에 온 남조선의 정체불명의 인원이 이른새벽 공화국의 군사통제구역에 불법침입하여 일어난 사건으로서 사실상 그 책임은 인원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남조선당국에 있다.

그러나 북측은 사건경위가 어떠하든 인도주의와 동포애적견지에서 책임을 더 따지지 않고 사건발생 즉시 남측관계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조사, 확인할수 있게 하여주었으며 유감표시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관광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담보의《3대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을 재개할수 없다고 한사코 고집하였다.

공화국은 대범하게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고려하여 2009년 8월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특별담보를 해주었다.

남조선당국은 북측이 정작《3대조건》에 대해 담보를 주자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생떼를 썼으며 공화국의 당국접촉제의에 대해서는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며 비틀다가 2010년 2월 마지못해 끌려나와《3대조건》해결을 위한 공화국의 합의서초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례하게 놀던 끝에 결국 회담을 결렬시켜버렸다.

북측은 2010년 10월과 그 다음해 1월에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거듭 제기하였지만 남조선당국은 그에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남조선당국은 현대측 관계자들이 북측과 만나는것마저 악랄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당사자들끼리의 접촉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2011년 3월 15일과 30일에 있은 북측 아태와 현대측과의 실무접촉때 남조선당국의 통제로 현대측의 책임적인 관계자들은 나오지 못하였으며 철저한 보도관제로 접촉정형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관광재개를 가로막기 위해 관광과 하등의 관련도 없는 핵문제와 함선침몰사건, 연평도포격사건까지 꺼들여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웠는가 하면 금강산관광객을 모집하는 외국의 려행사들까지 찾아다니며《사업권침해》요 뭐요 하고 훼방을 놓았다.

참으로 남조선당국의 금강산관광파탄책동은 그 반민족성과 비렬성에 있어서 경악을 자아낼 일이였다.

남조선당국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여서가 아니라 순전히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적목적으로부터 금강산관광을 파탄시켜버렸다.

관광이 중단되여 오늘까지도 민족의 명산을 보고싶어하는 동포들의 소망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남측기업들과 인민들이 입은 피해는 또 얼마인가.

금강산관광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이 파산몰락하고 그에 고용되였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되였으며 금강산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남조선 강원도 고성주민들이 살길이 막혀 죽음까지 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금강산관광사업의 파탄과 그에 따른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리명박보수《정권》에 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민족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그 누구의《돈줄》이니, 북에《퍼주기》한것이니 하고 중상하면서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에 제동을 걸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공화국을 고립압살하여《제도통일》,《흡수통일》망상을 실현해보려는 현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의 연장이다.

동족과 대결하여 어리석은 망상을 이루어보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책동으로 북남사이에 움트던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깨여져나가고 북남관계는 또다시 파탄되게 되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이야말로 북남관계악화의 근원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동족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최명제

↑ →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실질적통일준비》, 그것이 추구하는것은

얼마전 남조선보수당국은 《국회》에 보고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실질적통일준비》라는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마치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통일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민심을 유혹하고있으나 한마디로 보수당국이 목표로 내세운 《실질적통일준비》가 추구하는것은 《체제통일》이다.

우선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간다는 《실질적통일준비》의 내용자체가 《체제통일》을 내포하고있다.

지난 10월 통일부 장관 류길재는 그 무슨 《국제학술회의》라는데서 《경제, 문화공동체를 통해 작은 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이니 뭐니 하고 나발을 불어댔다.

이에 앞서 남조선의 현 집권자 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데 나타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작은 통일만 이루어도 남북주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을것》이라느니, 《작은 통일을 차분히 발전시켜나갈 때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한〉 반도의 큰 통일도 이뤄낼수 있을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그가 지난해 《대선》시기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이라는데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했던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보수당국이 말하는 이른바 《작은 통일》, 《큰 통일》이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다.

또한 보수당국이 《실질적통일준비》라는 미명하에 선정한 《추진과제》들도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보수당국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실질적통일준비》를 위하여 《북인권법제정지원》, 《국제사회의 북인권개선노력유도》, 《북리탈주민에 대한 맞춤형정착지원》 등 공화국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항목들을 채워넣었다.

《북인권법제정지원》 하나만 놓고보아도 그것이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보수당국이 목표로 내건 《실질적통일준비》라는것은 저들의 허황하기 짝이 없는 《체제통일》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현시기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7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렬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오게 된다.

《체제통일》이 초래할것은 전쟁뿐이다.

북과 남은 이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이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체제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린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체제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여나야 한다.

김성호

단평

정말 속담 그른데 없다

지난 18일 남조선당국자가 어느 한 좌석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을 꺼내들며 북이 어쩌구저쩌구 횡설수설하였다.

들어봐야 쓸 소리는 하나도 없고 입만 벌리면 동족대결적인 소리만 내뱉는 현 당국자여서 뭐라고 평할 가치도 없다.

하지만 《하나를 보고 열을 알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다.

북남관계문제뿐만아니라 지난 《대선》때 정보원, 군싸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건만 놓고보자.

남조선인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집권을 위해 군과 경찰, 검찰 등을 총동원하여 총칼과 금권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대규모부정《선거》를 감행하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던 리승만독재시대, 《유신》독재시대가 남조선사회에 부활되고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새롭게 알게 되였다.

다른것을 또 보자.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조선집권자는 로인기초년금을 비롯한 《복지공약》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기한다는것을 공포하였다.

당시 남조선인민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이미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줴버리는 위선자, 정치시정배로서의 남조선당국자의 진면모를 보게 되였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벌어지고있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놀음과 진보개혁세력탄압책동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정치적적수를 없애버리기 위해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야만적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유신》독재자의 기질을 현 당국자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것도 알수 있었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니 정말 속담 그른데 없는셈이다.

명금룡

남조선괴뢰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폭거를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조선의 동포형제자매들!

지금 남녘땅에는 악명높은 《유신》독재가 되살아나 또다시 파쇼의 광풍을 몰아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력사의 심판으로 비참한 종말을 고한지도 오랜 《유신》의 잔당들과 그 후예들에 의해 악몽같은 《유신》독재가 다시 막을 열고있으니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온갖 불법과 사기협잡으로 권력을 강탈한 《유신》잔당들은 지금 독재의 서슬푸른 칼을 빼들고 진보민주, 통일운동세력들에 대한 탄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들이 마구 휘둘러대는 파쇼의 몽둥이앞에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들고나가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전면 말살의 위기에 놓이고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로조(전공로), 《자주민보》를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과 언론들이 강제해체, 폐간의 운명에 처해있다.

지어 파쇼도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을 《종북》으로 몰아 박해하고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파쇼폭압의 검은 마수는 6.15관계자들과 민간협력단체들 지어 종교단체들에도 뻗쳐 평양을 방문하였거나 동족과 만난 사람들이 《친북요시찰인물》로 락인되거나 《간첩》으로 몰리워 철창속에 끌려가고있다.

30여년전 잔인한 《유신》독재자가 《반공》과 《용공척결》을 《국시》로 내들고 온 남녘땅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면 오늘 《유신》잔당들과 그 후예들이 《체제수호》와 《종북척결》을 《국시》로 삼고 온 남녘땅을 민주의 폐허지대로 만들고있다.

악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에서 《독재정권퇴진》 구호가 강력히 터져나오고 시국선언발표와 시가행진, 성토대회와 초불집회, 삭발식과 단식롱성이 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것은 저주로운 《유신》독재에 철추를 안기려는 분노한 민심의 분출이다.

온 겨레가 피뢰패당의 파쇼적폭거에 치솟는 격분을 터뜨리며 남조선동포형제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다.

세계의 진보적량심과 내외의 공정한 여론들은 한결같이 피뢰패당의 파쇼적폭거에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현 《정권》은 정보원과 군부,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우익보수언론들을 총발동하여 여론조작과 민심기만으로 집권한 철두철미 불법, 비법《정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온갖 부정협잡으로 권력을 가로챈 피뢰패당이 오히려 제편에서 야당과 진보세력들을 《체제위협세력》,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력사의 무덤에 영영 매장되였어야 할 포악무도한 《유신》잔당들이 되살아나 활개를 치면서 민주와 정의를 재판하고있으니 이를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유신》잔당들과 그 후예들이 독재부활에 기승을 부리며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에 악착스럽게 매달리는것은 남조선에서 진보의 씨를 말리우며 민주세력을 분렬와해시켜 말살하고 보수세력, 《유신》독재세력의 장기집권을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세력으로, 전교조와 전공로를 《리적단체》로 몰아 폭압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보원선거개입사건으로 터진 파국적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모략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남조선의 동포형제자매들!

민주와 파쇼독재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으며 민주화의 투쟁사는 곧 파쇼독재와의 투쟁력사이다.

《유신》후예들의 광란적인 파쇼적폭거로 오늘 남조선은 말그대로 민주화냐, 《유신》독재부활이냐를 판가름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피뢰패당의 파쇼적탄압을 짓부셔버리지 못하여 《유신》독재가 되살아나면 정의와 민주가 살아숨쉴수 없게 되고 장장 수십년동안 피와 목숨을 바쳐 쟁취한 민주화의 소중한 싹마저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유신》독재의 철권통치하에서 남녘의 동포들은 지긋지긋하고 숨막히는 중세기적암흑생활을 강요당하게 될것이며 외세와 결탁하여 전쟁광기를 부리고있는 대결호전세력에 의해 이 땅에서 핵전쟁의 참화가 빚어지게 될것이다.

《유신》독재의 부활은 21세기의 비극이고 민족의 수치이며 현 시대의 재앙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유신》독재부활을 결사배격하고 민주화를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자!

남녘동포형제들에게는 정의와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바쳐 싸워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그대들은 열혈의 청춘을 서슴없이 민주를 위한 항쟁에 바치고 수십년동안의 줄기찬 투쟁으로 리승만독재와 서슬푸른 박정희《유신》독재도 단연코 무너뜨렸다.

그 어떤 독재《정권》도 그대들의 민주화지향과 의지를 결코 꺾지 못하지 않았는가.

낡은것이 아무리 발악해도 새것을 이길수 없고 불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정의를 이길수 없다.

진보와 정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남조선의 모든 진보민주세력들은 련대련합하여 《유신》잔당의 통합진보당해산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전교조와 전공로, 《자주민보》사수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전공로, 《자주민보》에 대한 피뢰당국의 탄압책동을 짓부시는것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주와 파쇼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심각하고 첨예한 대결이다.

리념과 주의주장이 다르고 《종북시비》에 말려들가봐 진보정당과 단체, 언론들에 대한 말살책동을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머지않아 자신들도 그들과 꼭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것을 현실은 확증해주고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파쇼적폭거가 친미보수《정권》의 장기집권과 통일세력말살에 그 목적을 두고있는 이상 제2, 제3의 표적이 야당들과 재야단체들이 될것임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는가.

남조선의 모든 야당과 재야단체, 각계각층은 하나로 굳게 뭉쳐 진보정당과 단체, 언론들을 지켜내는것이 곧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임을 똑바로 명심하자!

정의와 민주를 사랑하는 남조선의 모든 각계층은 한결같이 떨쳐나 제2의 4.19를 폭발시켜 간악한 《유신》잔당들과 후예들을 몰아내자!

《유신》잔당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새것과 진보를 지향하는 민심의 억센 의지를 절대로 꺾지 못한다.

독재가 오래 가지 못하고 독재자의 말로가 비참하다는것은 력사가 가르쳐주는 진리이다.

무쏠리니와 히틀러독재가 그러했고 리승만과 박정희군사독재의 비극적종말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유신》독재부활의 앞장에서 서 폭압의 칼을 휘두르는 진보와 민주의 교살자들을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자!

친미보수세력의 《종북세력척결》 소동을 진보민주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저지파탄시키자!

《유신》독재부활을 막기 위한 투쟁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의 일환이다.

남조선사회가 민주화되여야 북남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도 있으며 자주통일도 실현될수 있다.

남녘동포들의 정의로운 반독재, 민주화투쟁력사와 《가자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밑에 온 남녘땅을 뜨겁게 달구었던 지난 년대들의 조국통일운동, 삼천리 강산을 통일의 함성으로 진감시켰던 환희와 격동의 6.15자주통일시대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유신》독재부활을 막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 조국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지키며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임을 잊지 말자!

리승만역도의 3.15부정선거로 4.19전민항쟁이 폭발했던 그때를 방불케 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남조선의 모든 진보민주세력들을 민주화를 위한 전민항쟁에로 힘차게 부르고있다.

《유신》독재부활을 저지시키고 민주화를 위한 남녘동포형제들의 의로운 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다.

온 겨레가 언제나 진보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그대들의 편에 서있으며 세계의 진보적인 민주애호력량이 당신들의 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전민항쟁의 거세찬 불길로 《유신》독재의 아성을 짓부시고 민주화실현과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일떠서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2(2013)년 11월 20일 평 양

죄에는 벌이 따른다

최근 남조선에서 진보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보수당국의 탄압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 말살에 혈안이 된 남조선보수당국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에 넘기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파쇼광란극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를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유신〉독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무슨 《헌법적가치와 자유민주적 질서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니, 《종북》이니 하고 떠들어대고있지만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딱지를 붙여 이 당을 파괴말살하고 진보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 전반을 초토화하려는 불순한 흉계는 결코 가리울수 없다.

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고 저들의 반동정책을 비판한다고 하여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죄》를 들씌우고 《종북》의 감투를 씌우며 합법적정당에 대한 강제해산에 미쳐돌아가는것은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동족대결을 고취하기 위한것이다.

보수당국의 진보세력말살책동은 비단 통합진보당에 국한된것이 아니다.

보수당국은 전교조가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옳바른 통일교육을 한다고 하여 쓴외보듯 하다가 끝내는 그를 《법외로조》로 만들어 그의 합법성을 말살하였다. 또한 전국공무원로동조합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압수수색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밖에도 반북대결과 사실외곡이 란무하는 남조선에서 그래도 인민들에게 공화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알려온 인터네트신문인 《자주민보》에 대해 《종북매체》를 운운하며 강제폐간시키려 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보수당국이 저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보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말살에 얼마나 혈안이 되여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진보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비렬한 탄압말살책동의 리면에는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권력기관들의 《불법대선개입사건》으로 날로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흉계가 깔려있다.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무턱대고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이를 단죄규탄하면서 반 《정부》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진보민주세력,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소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을 더욱 재촉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순

←↑ 당국의 진보세력말살책동을 규탄하여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종북〉 몰이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안정국》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인 《자주민보》는 《〈종북〉 몰이, 언제까지 가게 되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놀랄만 한 일이 벌어졌다. 통합진보당의 리석기의원 등을 〈내란음모혐의〉로 구속한것이 그것이다. 〈내란음모사건〉이 아니라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린것에 놀라워했다. 무슨 수작질이냐는 반응이 바로 터져나왔다. 대낮에 대로에서 식칼테로라도 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놀라움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였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이 인정하고있는 정당에 대해 〈국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는것은 두말할나위없이 대사건이였다. 놀라움의 최정점을 찍었다고도 할수 있었다. 두고두고 력사적으로 회자될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으로부터 시작된 공안정국, 그 핵심내용은 〈종북〉몰이였다. 공안정국을 다양하게 경험해보았던 정세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차라리 계엄정국과 크게 다를것이 없다고도 했다.

〈종북〉몰이로서의 공안정국이 휘몰아치는 동안 사회는 정확히 두동강이 났다.

량심있는 사람들이 확인해야 했던것은 분노가 아니였다. 분노에 앞서 분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몸을 휘감고 도는것은 슬픔이였다. 분단체제가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강요하는 비극적인 풍경은 그렇듯 공안정국의 본질적인 모습이였다.

위기모면책이였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안정국이 시작되였으며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는것이였다.

〈대선〉개입의혹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확산된데다 국방부의 국방부싸이버사령부, 더 나아가 〈국가보훈처〉로까지 이어졌다. 총체적인 〈선거〉개입이였다. 단순히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것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웠다. 〈정권〉연장 그리고 〈정권〉연장을 뛰여넘어 분단체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위기의식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들이 다 나서서 〈대선〉에 개입하게 되였다는것이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들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이 순차적으로 파기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중요한 이슈로 전혀 되지 못하는것은 국민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종북〉몰이가 국내정치를 실종시켰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다.

사회는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를 가장 잘 알고있는 대중들을 일러 흔히 〈자주적대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객관적조건이 무르익고 유리해도 주체가 준비되고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는것을 경험속에서 충분히 알고있는것이 〈자주적대중〉들인것이다.

매 주말마다 이어지는 초불현장에서 확인되는것이 있다. 〈자주적대중〉들이 운동화를 질끈 매고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분단체제를 종식시켜낼수 있는 위력한 힘은 그렇듯 〈자주적대중〉에게서 나오게 될것으로 보인다.》

본사기자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말라니…

지난 18일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 류길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어느 한 《특강》이라는데서 《필요하다면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느니, 《통일과정은 남이 주도해서 이끌고나가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했다.

겨레의 통일지향과 념원을 우롱, 모독하는 반통일악담이 아닐수 없다.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숙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나라의 분렬로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없다. 외세에 의해 하루아침에 생떼같이 갈라진 북과 남의 수많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의 생사여부조차 모른채 근 70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갈라져 살고있다. 조국이 해방되던 날 태여난 《해방동이》들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더욱 짙게 드리워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민족분렬의 아픔을 절감하게 하고있다. 나라의 분렬은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민족적재난을 가져다주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5 000여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는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류길재의 발언은 분렬로 고통받는 겨레의 아물지 않는 상처에 재를 뿌리고 침을 뱉는것과 같은 용서받을수 없는 망발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지금껏 입만 벌리면 《리산의 아픔》이니 뭐니 하며 분렬로 인한 민족의 고통에 대해 걱정하는 시늉을 해왔다. 류길재의 이번 발언은 그것이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거짓말이며 그들의 머리속에는 통일이란 개념조차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로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되였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왜 깨여지고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있는가 하는것이 명백해졌다.

류길재는 얼마전 더러운 배신자, 인간추물인 황가놈이 숨어살던 곳에까지 기신기신 찾아가 불순한 모의판을 벌리고 대결적흉심을 드러내놓았다.

류길재가 《통일과정은 남이 주도》니 뭐니 한것은 바로 동족과 끌까지 대결하자는것이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다.

이로써 남조선보수당국이 광고하는 《신뢰프로세스》가 《대결프로세스》, 《불신프로세스》, 북남관계《단절프로세스》라는것이 다시 한번 립증되였다.

남조선에서 통일부는 지금껏 민족의 분렬을 심화시키고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못된짓을 수없이 해왔다. 최근 폭로된바와 같이 통일부가 《도강비》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비렬한 유인, 랍치소동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온 겨레는 이미 남조선의 통일부를 《분렬부》, 《대결부》로 락인한지 오래다.

류길재의 이번 발언으로 남조선에서 통일부라는 그 낯간지러운 허울도 명분이 없어졌다.

예로부터 천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 없이도 죽는다고 했다.

민족의 통일지향과 념원을 모독해나선 류길재와 같은자들이야말로 저 승사자가 물어간 황가와 같은 비참한 신세를 면할수 없다.

김 철 민

파쇼폭압에 맞서 투쟁강도를 높일것을 주장

남조선의 광주진보련대와 전남진보련대가 16일 광주역광장에서 독재를 부활시키고 진보정당, 단체들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당국을 심판하기 위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정권》이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행위가 밝혀지자 통합진보당과 로조들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서 나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탄압을 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용납할수 없어 투쟁에 나서게 되였다고 언명하였다.

박근혜독재를 박살내고 자주와 민주, 평화, 통일, 평등의 세상을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탄압이 강화될수록 투쟁의 도수도 더욱 높여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금남로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시위행진도중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광주시당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보안법》철폐와 여당, 정보원해체, 정보원 원장 구속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사라진 《대선》 공약이 주는 의미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지난 《대선》때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수많은 《공약》들을 내흔들며 그의 철저한 《리행약속》을 한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집권하면서 인민들과 한 《약속》은 오늘까지 어느것 하나 똑똑히 지켜진것이 없다.

다른것은 제쳐놓고 《대선》당시 주요핵심공약으로 내들었던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의 리행여부만을 살펴보자.

지난해 《대선》당시 현 집권자는 정치쇄신약속으로 내든 《국회선진화법》도 시행 1년만에 위헌이라며 개정안을 준비하고있는 정도이고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남겨둔 가운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공약도 뒤집으려 하고있다. 정치쇄신 공약가운데 책임장관제, 녀성장관비률 대폭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등 핵심공약 대부분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고말았다. 그런가하면 검찰에 집중된 권력분산을 위해 상설특검제를,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별감찰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공약도 마찬가지이다.

현 집권자는 지난 7월 10일 언론사 론설실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스스로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취임 10개월간 경제민주화공약 리행률은 2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공약 18개 주요공약가운데 리행된게 4개밖에 안된다는것이다.

국민대통합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금 남조선에서 부정《선거》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야간 대립과 갈등은 매우 첨예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것처럼 《대선개입사건》이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여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행위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이 이쯤 되였으면 보수세력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책임지고 사과할 대신 제편에서 큰소리치며 진보세력들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있다. 그들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전국공무원로동조합이 지난 《대선》때 야당후보를 지지했다고 하여 《불법대선개입》을 운운하고있는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보수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몰아 해산하려는 《정치보복》 행위를 거리낌없이 하고있다. 말그대로 내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유신》파쑈독재시대를 방불케 한다. 《종북》의 자대로 진보와 보수를 쭉 갈라놓고 진보에 대하여서는 일방적인 탄압으로 씨까지 말리려 하면서 여기에 그 무슨 국민대통합을 운운할 자격이 있겠는가.

지금에 와서 따지고보면 애당초 현 집권자가 《대선》공약들을 실천할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울뿐이다.

최근 현 집권자가 내세운 검찰총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후보자들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도입 등 《대선》 공약리행에 반대립장을 밝힌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비록 현 집권자가 전면에 나서 공약파기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정책은 인사를 통해 표현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즉 현 집권자는 앞에서는 《공약리행》을 떠들지만 뒤에서는 수하 졸개들을 시켜 모조리 파기하고있는셈이다.

현실은 현 집권자가 내든 《대선》 공약이란 민심을 기만하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기만의 공약, 미사려구공약으로서 어느 하나 제대로 실현될수 없는 공약들이라는것을 명백히 시사하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대선》공약을 폐기한 현 집권자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들리지 않는다.》

최근 남조선정계에서 이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콩으로 메주를 쑤는 뻔한 리치를 놓고도 그것이 곧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 답은 남조선 정치현실이 주고있다.

멀리 갈것 없이 최근에 있은 현 집권자의 《시정연설》을 두고 제기되는 사실들을 놓고 따져보자.

지난 18일 남조선의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에 있은 현 집권자의 《시정연설》을 두고 《박 〈대통령〉은 국민적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책임질 일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여기서 현 집권자가 말한 《국민적의혹이 제기된 사항》이란 최근 남조선정치계에 태풍을 몰아오는 《불법대선개입사건》으로서 그는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그 진상을 정확히 알려줄 꼬물만 한 의사도 없다. 정보원과 군싸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권력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입한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현 《정권》이 불법《정권》임을 시인하게 되는데 과연 현 집권자가 이를 용납할것인가. 애초에 현 집권자가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에 대해 털어놓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렬 전 특별수사팀장을 이러저러한 부당한 리유로 제껴버리지 않을것이다. 또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요구대로 수사에 각방으로 방해를 노는 정보원 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등을 해임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와는 반대로 행동하였다. 그러니 그가 《국민적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겠다.》고 한것은 한갖 가을날의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하다.

현 집권자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책임질 일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한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남조선의 경찰, 검찰, 법무부 등 사법부에는 어지간히라도 눈이 바로 배긴 사람들은 모조리 쫓겨나고 현 집권자의 수족노릇을 하는자들로 채워져있다. 이런자들이 과연 현 당국의 비위에 맞지 않는 판단을 내리겠는가.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불법대선개입사건》 해명과정을 보면 전부 그것을 축소은폐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이래도 현 집권자의 말을 곧이 들어야 하겠는가.

문제가 또 있다.

《새누리당》이 현 집권자의 말이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을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것이다.

야당의 주장이 지난 《대선》에 불법개입한 정보원의 특대형부정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조사》와 이번 기회에 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는것을 막기 위한 개혁을 위해 《개혁특위》를 구성하는것이라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현 집권자는 이번에 일언반구도 없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준다는 식으로 대치해버렸다.

하다면 《새누리당》이 과연 야당의 주장에 응해나서겠는가.

가재는 게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 현 집권자를 내세워 불법으로 권력을 강탈한 《새누리당》이 제 죽을줄 모르고 야당의 요구에 동조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현 집권자가 이번의 《시정연설》에서 한 말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실현불가능한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지 못할 소리》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문제》가 없이 《답》이라니?

최근 남조선의 《새누리당》이 야당이 요구한 《정보원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개혁특위》)를 수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편으로 그들은 야당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의 하나인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해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도입은 그 사건이 현재 《재판진행중》이라느니,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한사코 반대하여나서고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따지고보면 《특검》과 《개혁특위》는 정보원과 관련된 문제로서 서로 련결되여있다.

《특검》이 지난 《대선》에 불법비법적으로 개입한 정보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것이라면 《개혁특위》는 밝혀낸 진상에 따라 정보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사전에 대책하기 위한것이다. 한마디로 《특검》도입이 《문제》라고 하면 《개혁특위》는 《답》이라고 할수 있다.

아마 철부지 어린 학생들도 《문제》없이 《답》을 내라고 하면 대번에 《세상에 그런것도 있나요?》하면서 의문을 표시할것이다.

바로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뻔한 리치를 놓고 《새누리당》은 《특검》과 《개혁특위》가 별개의 문제인것처럼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마치도 정보원의 개혁으로 《대선》개입의 진상을 해결하는것처럼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리 만무하다.

야당을 비롯한 각계가 《새누리당》의 부당한 처사를 두고 《〈선거〉 범죄를 제대로 밝히자는것을 결사 반대하면서 대책만 만들자고 하면 그 말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고 단죄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얼빠진 론리로 지난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을 가리우려고 애쓰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범인, 공범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만을 더욱더 드러낼뿐이다.

리광성

《국회선진화법》 개악놀음에 비낀 흉심

최근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이 최악의 위기에 몰린 저들의 궁색한 처지를 돌려세워보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새누리당》은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의 투쟁을 정쟁으로 몰아대면서 그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운운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속내는 《국회》를 저들의 반역정책강행과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에 리용해먹으려는데 있다.

원래 《국회선진화법》은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18대 《국회》때 저들의 반역정치로 빚어낸 《폭력국회》, 《최루탄국회》의 오명을 벗어보겠다고 《여야협력의 정치》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느니 하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제19대 《국회》때부터 적용된것이다.

일명 《몸싸움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은 종전에 《국회》 과반수 의원의 지지가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게 되여있던것을 여야정당의 립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요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5분의 3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처리할수 있도록 바꾼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은 정치를 선진화시킨게 아니라 마비시키고있는 〈국회마비법〉》이라고 하면서 마치도 이 법때문에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있다고 생떼질을 쓰고있다.

하다면 《새누리당》이 과연 민생에 얼마만 한 관심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보수세력들이 지난 《대선》당시 민생과 관련하여 기초년금제도입,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귀맛좋은 공약들을 들고나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집권이후 그것들을 다 줴버리였다. 최근에도 보수세력들은 다음해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기초년금제도입 등 《대선》공약실행을 위한 지출을 거의 모두 축소하거나 포기했다. 경제민주화공약은 《재벌들을 줴짜는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놓고 거부하였다.

반값등록금, 무상보육공약도 하늘로 날려보낸지 오래다.

한편 보수세력들은 철도 《민영화》책동을 반대해나선 로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마저 체제전복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민생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보수세력들이 하는짓이다.

이런 사이비정치세력들이 민생을 운운하며 저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개악하겠다고 하는것은 한마디로 《국회》를 독차지하고 수많은 정치파쑈악법들을 만들어내자는데 있다.

하기에 야당은 물론 남조선 각계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놀음을 두고 《날치기본능의 재발, 제 얼굴에 침뱉는 격》, 《독재적발상으로 〈국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 단죄하며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바빠맞은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선진화법》개정을 《20대국회》에서 론의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 포기나 한듯이 여론을 돌리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갖 기만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주요사항중의 하나인 《직권상정》조건을 낮추겠다고 하는것은 단적인 실례이다.

개꼬리 삼년 묵어도 황모가 될수 없듯이 《새누리당》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현실은 《새누리당》이야말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며 민심우에 군림한 파쑈독재무리들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박경일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자!

외세의존은 전쟁과 대결의 근원

남조선의 집권보수세력이 반공화국압살을 노린 외세와의 공조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보수당국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대북인권특사》라는자와 쑥덕공론하는 자리에서와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와 가진 《고위급전략대화》라는데서 《북핵문제》와 《북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반공화국적대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발광하였다.

외세에게 구걸하여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사대매국노들의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터놓고 말해서 남조선보수당국은 《핵문제》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그래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사상최대의 핵전쟁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핵전쟁불장난소동으로 겨레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날뛴것이 과연 누구인가.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당국은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방대한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화약내나는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그래 이것이 과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것인가.

더우기 《핵문제》는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직접 마주앉아 해결할 문제로서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보수당국이 끼여들어 이러쿵저러쿵할 사안이 아니다.

《인권》문제 역시 다를바 없다.

정보정치, 폭압정치가 란무하는 속에 정당, 단체활동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인권마저 깡그리 말살당하고있는것이 오늘 남조선의 현실이다.

《종북세력척결》의 미명하에 남조선 전지역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있는 파쑈당국의 탄압소동으로 남조선사회는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던 《유신》독재시대를 방불케 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당국의 탄압만행을 《되살아나는 〈유신〉독재의 망령》, 《현대판 마녀사냥》, 《〈유신〉독재에로의 회귀》로 준렬히 락인규탄하면서 매일과 같이 초불시위를 비롯한 반《정부》시위투쟁을 계속 벌리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이 저들의 반인권죄악에는 입을 뻑씻고 그 누구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것은 적반하장격의 강도적주장으로서 가소롭고 주제넘은 짓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외세와의 공조에 의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한사코 매달리고있는 배경에는 어떻게 해서나 공화국을 노린 국제적공조를 강화하여 저들의 《체제통일》야망을 손쉽게 실현하자는데 있다.

외세와의 공조는 동족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근원이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과 압살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언제 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고 이 땅에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외세공조가 불러올 파멸적후과를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김철호

재미동포들 부정《선거》를 규탄하여 초불시위

재미동포들이 남조선당국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있다.

15일 미국 뉴욕에서 초불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정보원만이 아닌 다수 권력기관들을 동원하여 협잡《선거》를 치른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을 규탄하였다.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기 위해 수사담당자들을 징계하고 전교조탄압과 통합진보당해산책동에 날뛰는 보수세력의 추태는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난하였다.

지어 극우세력이 재미동포들의 초불시위까지 방해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배후에는 분명 정보원의 공작이 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16일 워싱톤에서도 재미동포들이 초불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주의파괴자 정보원을 해체하라!》, 《불법부정 당선범 박근혜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남조선역적패당의 불법행위를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세차게 타번지는 최첨단돌파의 불길

얼마전 평양에서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내외의 큰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대회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최첨단돌파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개척자들의 대회, 나라의 과학기술이 도달한 높이를 만방에 떨친 승리자들의 대회였다.

세계를 놀래울 배짱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오늘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재로, 강성국가건설에 한몫 단단히 하는 선구자로 자랑떨치고있다.

이런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날에날마다 세상을 놀래우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최첨단돌파의 불길높이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이 적극 개발되여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려는 배짱과 기상이 높이 떨쳐지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최근에 이룩된 몇가지 과학기술성과들을 놓고보자.

얼마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의 강진우교원은 과학기술대국이라고 하는 서방의 이름있는 대학과 연구소들에서 그것도 가장 고급한 인재들만이 할수 있다는 우주의 팽창을 비롯한 미해명문제들을 해결하여 우주의 시원에 관한 문제를 독창적인 과학리론으로 증명하였다. 세계적으로 제노라 하는 학자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는 그의 새로운 견해와 주장은 국제학술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곳 대학의 수학부 연구집단도 대수계의 구조특성을 밝혀 대수학분야의 수학기초리론을 세계의 앞선 수준에 올려세우고 정보과학기술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여 대수계리론에서 미해명이였던 네가지 기초리론문제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결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공화국이 패권을 쥐게 되였다. 수학리론적으로 매우 어려운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연구집단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는 대수계의 구조연구에 대한 해명은 이 분야에 대한 리론연구에서 공화국이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조선천연흑연개발교류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개발하고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있는 천연흑연솔은 오늘 세계적인 패권을 쥐고있다.

제힘으로 창설하는 첨단산업

공화국에서는 첨단산업창설에 이바지하는 성과들도 많이 이룩되고있다.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 콤퓨터조작체계, 내장형조작체계, 화상처리프로그람, 바둑프로그람, 기계번역프로그람, 동화상부호화기술, 문자인식체계, 지문인식체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람개발에서 첨단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

우리 식의 성능높은 정보설비들이 개발되고있다. 공업용콤퓨터 《노을》과 공작기계용CNC조종장치, 지능형자동화기구 그리고 누구나 쓰기 편리한 판형콤퓨터와 독특하고 새로운 콤퓨터입력기 《첫 의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보설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고있다.

생물산업창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생물공학부문의 과학자들은 키낮은사과나무접그루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면역조절다당체, 청곡키나제를 비롯한 의약품들을 생물공학적방법으로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연구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값비싼 생물공학제품들의 공업적생산기술을 확립하였다. 이들은 종자혁명에서도 세계적인 패권을 쥐려는 야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전자발현조절기술을 리용한 새로운 벼품종의 육성방법을 확립하였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은정과학지구에 꾸려진 CNC조종장치 및 지능형자동화요소기구 생산기지들과 분산형콤퓨터조종장치생산기지, 첨단정보기술제품생산기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있는것이다.

이 기지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 무인화실현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지적제품들을 국산화하는데서 실질적인 은을 내고있다. 이것은 은정과학지구를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가 일체화된 첨단개발구로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토대로 되고있다.

지금 온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승산이 확고한 첨단연구과제들을 올해안으로 결속하기 위한 마지막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높은 실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대가 있어 공화국의 과학기술은 최첨단을 향하여 더욱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홍 범 식

최첨단돌파의 불길속에 현대적인 공작기계생산기지로 전변된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버섯공장들이 도처에

최근 공화국의 각지에서 버섯공장건설과 개건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 7월 어느 한 버섯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런 버섯공장들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건설하여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그이의 뜻대로 도처에서 버섯공장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강원도에서 버섯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도에서는 버섯공장건설을 틀어쥐고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량강도와 함경북도에서도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으로 버섯공장건설을 드세게 내밀고있다. 량강도에서는 추위가 빨리 오는 특성에 맞게 공사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워놓고 그날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고있다. 함경북도에서도 벽체축조와 층막치기 등을 와닥닥 해제끼며 기본생산건물과 여러동의 궁륭식박막온실, 보조건물들에 대한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다.

남포시, 라선시, 평안남도에서는 버섯공장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강냉이속, 낟알짚, 톱밥을 비롯하여 기질원료확보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고있다.

각 시, 군, 구역들에서도 버섯공장과 버섯재배기지건설 및 개건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북창군, 회창군, 연탄군, 평산군, 강서구역 등 많은 시, 군, 구역들에서 버섯공장과 버섯재배기지건설 및 개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개성시에서는 버섯공장건물을 종전보다 1.5배로 확장하는 공사를 내밀면서 기질생산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이밖에도 장강군, 초산군, 안변군, 회양군을 비롯하여 버섯공장건설 및 개건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된 많은 시, 군, 구역들에서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화국의 예술인들

* 제8차 국제기악연주가콩클에서 *

얼마전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에서 진행된 제8차 국제기악연주가콩클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배우들인 송경업, 백성혁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콩클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벨라루씨, 우즈베끼스딴 등 7개 나라의 70여명이 참가하였다.

콩클에서는 학생들과 교원들, 예술인들이 바얀 및 손풍금, 피아노를 비롯한 5가지 기악부류로 나누어 1선과 2선에 참가하였다.

기악안삼블부류 바얀 2중주에 참가한 백성혁과 송경업은 훌륭한 연주기량을 보여줌으로써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들은 바얀, 손풍금독주부류에도 참가하여 여러 명곡들을 잘 형상하였다.

페막식에는 높은 연주술과 예술적기량을 보여준 공화국의 예술인들에게 기악안삼블부류 특등상장과 특등컵이, 송경업에게 바얀, 손풍금독주부류 1등상장과 1등컵이, 백성혁에게 같은 부류 2등상장이 수여되였다.

본사기자

경기장에 휘몰아친 《조선폭풍》

얼마전 중국의 신화통신은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력기경기에서 큰 성과를 거둔 공화국의 녀자력기선수들에 대하여 이렇게 보도하였다.

이번 동아시아경기대회 력기경기장에서는 《조선폭풍》이 휘몰아쳤다. 녀자력기 69kg급, 75kg급 경기 금메달은 모두 조선선수들이 목에 걸었다.

금메달을 쟁취한 림정심과 김은주는 2개 몸무게급의 세부종목경기 및 종합성적에서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림정심은 녀자력기 69kg급 끌어올리기 첫번째 들기에서 107kg을, 두번째 들기에서는 112kg을 들어올렸다. 그는 세번째 들기에서 117kg을 성공함으로써 대회기록을 한번 갱신하였다.

그는 또한 추켜올리기 첫번째 들기에서 136kg을 들어올렸다. 하여 253kg의 종합성적으로 두번째로 대회기록을 돌파하였다. 이렇게 림정심은 6차례에 걸쳐 대회기록을 돌파하고 우승하였다.

림정심의 경기가 끝나자 김은주가 등장하였다.

녀자력기 75kg급경기는 그의 《독무대》로 되였다.

그는 이 경기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성적에서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였다. 김은주는 끌어올리기 두번째 들기에서 113 kg을 들어올려 종전대회기록을 1kg 갱신하였다.

중국선수 장천은 종합성적 218kg으로 2위를 하였다.

장천은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참가한 경기대회이다. 2명의 조선선수들은 실력이 매우 높다.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정신은 따라배울만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대회 력기종목에서는 녀자 5개 몸무게급경기만 진행되였다. 조선선수들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는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선수들이 완전히 독점적지위를 차지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상상으로 하는 체육훈련

선수들마다 자기식의 독특한 훈련방법이 있다. 어느 한 나라의 세계빙상휘거선수권보유자는 자기가 진행한 심리훈련방법의 하나인 상상훈련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훈련과 경기때에 움직이지 않고 하는 독특한 훈련수법을 남달리 좋아한다.

그것은 훈련과 경기시작전에 몇분간 내가 수행해야 할 경기동작들을 머리속에서 생동하게 그려보는것이다. 이런 반복과정에 나에게는 경기동작을 매우 정확하고 천연색영화화면처럼 생동하게 그려보는 상상력이 형성되였다.

얼음판을 지치는 스케트소리, 매 동작과 그에 해당한 음악, 관중들의 박수소리와 팔과 다리에서 일어나는 힘살긴장, 이 모든것이 실지 살아서 움직이는것같이 느껴지군 한다.

물론 이런 능력은 하루이틀에 형성된것이 아니며 오직 꾸준하고 중단없는 상상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특기라고 할수 있다.》

선수들은 상상훈련을 통하여 실지 자기가 수행하는 모든 기술전술적동작들을 수정하고 개조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준비하게 된다.

본사기자

민속풍습

백 년 가 약

가약이란 부부가 되자는 약속을 말한다.

백년가약이란 부부가 되여 백년 즉 한평생을 같이 살자고 굳게 다지는 언약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량속인 백년가약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혼례식때 남자의 집에서는 기러기와 같이 한번 짝을 무으면 절대로 갈라지지 않고 일생을 같이하겠다는 의미에서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녀자의 집에서는 한마음이 되여 오래오래 함께 살려는 순결한 감정을 담아 길게 늘인 청실, 홍실이 달린 조롱박잔 두개를 준비하였다.

백년가약은 력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전통적으로 전해져내려온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고유한 풍습이다.

한번 결혼을 하면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좋은 풍속은 오늘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본사기자

사무실의 화분과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무실에 화분을 놓으면 사무원들의 건강에 좋다고 한다.

사무실의 화분은 사무원들의 정신적긴장감을 해소시킬뿐아니라 피로회복과 갈증, 피부건조, 머리아픔 등의 증상을 없애는데도 도움을 준다.

사무실안에는 건강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떠돌아다니는데 화분의 식물과 토양속에 있는 세균이 화합물의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꽃관상식물보다 잎관상식물을 키우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것은 잎관상식물이 잎의 면적이 크므로 보다 많은 산소를 생성하는 한편 공기속의 독성물질을 더 많이 분해할수 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삼도무부지》란 말의 유래

어느날 연산군은 나라의 기일제사날에 흥청, 운평들을 시켜 음악까지 연주하게 하면서 연회를 벌려놓았다. 이것은 조상전래에 있어보지 못한 일이였다.

연산군은 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짤막한 《시》 한수를 지어 여러 신하들에게 내보이였다.

어떤 사람이건
오늘 조회때 의견을 말한다면
삼 도 무 부 지 를
면할소냐

신하들은 너무도 아연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이때 임사홍이라는 간신이 그 《시》를 펼쳐들고 큰소리로 《시》속의 뜻을 줄줄이 풀이해나갔다.

《… 〈삼도〉란 환도, 작도와 긴 도끼를 말한것이고 〈무부지〉란 죄인을 수레에 달아서 끌고다니는것이 마치 춤추는 사람의 형상과 같다.…》

이것은 곧 칼과 도끼를 들고 수레를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목을 베듯이 오늘의 이 피이한 연회에 의견을 가지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는 연산군의 《엄명》이였다.

연회장에 있던 신하들은 공포감에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연산군은 이렇게 나라의 기일제사날을 음악까지 연주하며 먹자판, 놀이판으로 만드는 자기에게 감히 엇서지 못하도록 짤막한 이 《시》로 신하들의 입을 애초에 봉해버렸던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삼도무부지》라는 말은 멀쩡한 사람을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탄압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악어구두

《악어(가죽)구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손님의 악어가 몇문을 신습니까?》

단편소설

순결한 마음 (4)

글 주광혁, 그림 김윤일

2

《언니. 〈평화〉가 새끼를 몇마리나 낳을가요?》

순애의 물음에야 비로소 나는 자신이 어느덧 사동안에 들어서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벌써 주위는 어둠에 잠겨있었다.

림시로 설치해놓은 밝은 전등빛이 사동안을 밝히고 잠방에 들어있는 《평화》의 고르로운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있었다.

《글쎄, 개들은 한배에 1~12마리 낳는데 최고 20마리까지 낳는것들도 있지 않니. 그런데 첫배는 대체로 좀 적어.》

항상 명랑하고 생기발랄한 순애였건만 이런때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학생같았다.

나는 진지한 눈빛을 하고있는 순애에게 진도개의 일반적특성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진도개는 남조선의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 퍼져있다는것이며 몸집이 작고 령리하며 재롱을 잘 피우면서 주인을 따른다는것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난 언제면 언니처럼 될가?》

순애의 물음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나처럼? 순애가 어째서, 난 오히려 네가 부럽더구나. 오늘 네가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려고 익살부린것도 다 안다.》

뜻밖이라는듯 당실해진 순애의 눈이 복스럽게 깜박거렸다.

《내가요?》

《그럼, 순애는 인물곱고 성격도 활달하지, 그리구 책임성도 강하지. 배우려는 노력도 많고… 그러니 순애한테 꼭 좋은 총각이 생길거야.》

나의 말에 순애가 갑자기 호— 하고 가벼운 한숨을 내쉬였다.

《너 왜 그래?》

순애는 말을 떼기가 거북한듯 량볼만 붉히다가 결심한듯 입을 열었다.

《언니, 언닌 지금 하는 일이 재미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순애의 물음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내 눈치를 살피며 한참 갑자르던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는 나의 눈총에 못견디겠는지 입을 열었다.

《언니, 난 중학시절부터 가수가 되려고 했어요. 화려한 무대우에서 눈부신 조명을 받고싶었고 관중들의 박수갈채와 꽃보라도 받고싶었어요. 그런데 요놈의 작은 키와 똥똥한 몸집때문에 엥이…》

작업의 쉴참은 물론 짐승들의 우리안을 청소할 때에도 희한하게 맑고 청높던 순애의 노래소리가 새삼스레 되새겨졌다.

애꿎은 장화목을 매만지며 고개를 갸웃하고있는 순애의 오동통한 몸집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만큼 귀엽게 안겨왔다.

《그런데 글쎄 이게 뭐예요, 꽃보라가 날리는 무대우가 아니라 묵은 털이 날리는 개우리안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줄이야… 그리고 또 저 식물원 관리공들을 좀 봐요. 우리처럼 배합먹이, 알사료, 첨가제 이런것들을 쓰지 않아도 식물들은 얼마나 쑥쑥 잘 자라기만 해요. 우리안을 청소해주고 묵은 털을 없애느라 빗으로 쓰다듬고 비누칠해주고 발톱을 깎고 귀안을 닦아주는 이런 품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우린…》

도무지 대중할수 없는 순애의 심정이다.

말은 심각하게 하면서도 얼굴은 어느덧 웃고있는것이였다.

《그럼 넌…》

갑자기 순애가 웃음을 터뜨렸다. 무릎우에 얼굴을 묻고 무엇이 그리도 우스운지 그냥 웃다가 겨우 말꼬지를 뗀다.

《언니… 왜 그렇게 놀라요? …》

한동안이 지나서야 순애는 나를 또렷이 바라보며 말하였다.

《언니, 이자 방금 말한건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한것이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날이 커가는 진도개들을 보면서 그리고 언니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는 긍지같은것이 가슴속에 꽉 차올라요. 왜서인지 지금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싶고 우리 개들에게도 배워주고싶어요.》

순간 내 마음은 뭉클해졌다.

순애가 깨물어주도록 사랑스러워났다.

동물들에게 음악까지 배워주고싶다니?

씻긴 하늘처럼 마음이 개운해진 나는 순애의 상큼한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말았다.

《웃기지 말아, 짐승들에게 어떻게 노래를 배워준다고 그러니?》

순애는 열정적이였다.

보라. 일반적으로 짐승은 조류보다 훨씬 발달한 동물이다. 조류인 앵무새도 사람의 말을 흉내낸다. 단절음밖에 내지 못하는 새도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데 길고 짧은 소리와 높고 낮은 음을 내는 짐승들이 왜 못하겠는가.

이러며 묻는 순애의 눈빛에 나는 대답이 궁색해졌다.

《언니, 왜 개들이 점심시간 낮고동이 울릴 때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목을 빼들고 우— 하고 구슬프게 우는지 알아요?》

《…》

듣고보니 그런 일은 개들속에서 매일이다싶이 반복되군 하였지만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순애만큼은 생각하지 못했던 나였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